

초등 지리교육에서 재현된 ‘장소감’ 내용 분석

김혜진*

Analysis on the Contents of ‘Sense of Place’ Represented in Elementary Geography Education

Hye Jin Kim*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학문으로서의 ‘장소감’과 교육과정·교과서에서 재현된 ‘장소감’을 비교하여 적실성을 살피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학문의 발전은 학교에서 가르칠 내용의 변화로 이어진다. 교육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은 학문적 지식은 교수학적 변환(didactical transposition)으로 학교에서 가르칠 자식이 된다. ‘장소감(sense of place)’ 역시 이와 같은 절차로 2015개정 초등학교과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였다. 공간과 장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인간의 실존주의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장소감’이라는 개념은 지리교육에 있어 중요한 연구 주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 연구는 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학문 분야에 따라 장소감에 대한 의미와 범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장소정체성, 장소애착, 장소의존성 등 하위개념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장소감이라는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었다기 보다는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는 장소감을 사람들이 장소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느낌으로 정의하고, 사적 지리의 측면에서 개인마다 장소감이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어 : 장소, 장소감, 사적 지리, 어린이 지리학, 교수학적 변환

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meaning of sense of place by examining diverse studies on a sense of place and verify the relevance by comparing with curriculums and textbooks. Academic development leads to a change in contents to teach at school. For the contents to teach at school, an academic research result must be credited for validity of its educational value. One of noticeable transitions from the 2009 Revised Curriculum to the 2015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was the emergence of ‘sense of place’. A discussion on place has been established as a crucial topic in geography education, since it was researched by Yi-Fu Tuan and Edward Relph in earnest. In recent times,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place, and research on a ‘sense of place’ is being widely conducted in various academic fields, including geography. But there are a lot of differences in meaning and category of sense of place depending on academic fields, and the emergence of related concepts, such as place identity, place attachment, and place dependence is bring about confusion. On the other hand, the curriculum and the contents of sense of place to teach at school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advancement in place-based education and private geography, and children’s geography, based on the didactic transposi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meaning of sense of place by examining diverse studies on a sense of place and verify the relevance by comparing with curriculums and textbooks.

Key Words : Place, Sense of place, Private geography, Children’s geography, Didactical transposition

*서울수서초등학교 교사(Teacher, Seoul Suseo Elementary School, loveain7076@gmail.com)

I. 서론

최근 장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장소’라는 개념이 일상생활은 물론 많은 학문과 관련되어 있는 까닭에, 장소 관련 연구 역시 지리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심리학, 건축학, 도시계획, 관광학, 인류학, 문학 등에서 폭넓게 이어지고 있다. 장소에 대한 연구 중 ‘장소감(sense of place)’은 주목할 만한 주제 중 하나다. 장소감은 어떤 개인 혹은 집단이 장소에 부여하는 의미, 애착 등의 감정을 가리킨다(Semken, 2005). 연구는 장소감의 의미 규명이나 형성과정에 초점이 두거나, 장소정체성, 장소애착, 장소의미 등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많다. 그러나 장소감은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 연구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나 장소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2015개정 초등사회과교육과정에 가르칠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지리 지식과 삶을 연결하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장소를 기반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논의(김정아·남상준, 2005; 남호엽, 2005)가 일찍이 있었다. 학생이 자신의 삶을 탐색하고 의미 있는 장소를 만들어가는 능동적 작은 시민임을 고려할 때 장소 교육은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장소는 지리교과의 핵심이 되는 기본 개념에 속한다. 김다원(2017)의 연구에 따르면, 장소개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미국 7개국에서 초기 지리 학습 내용으로 등장한다. 나라 간에 적용양상을 다소 상이하다.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는 장소감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미국과 영국에서는 장소성, 장소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삶과 장소의 관계와 장소의 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장소감 내용은 최근 지리교육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김다원, 2017), 2015개정 초등사회과교육과정에 ‘장소감’ 내용이 포함된 것은 세계적인 연구 추이와 장소에 대한 정신적 의미부여를 강조하는 담론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학문적 지식으로서의 ‘장소감’이 학교에서 가르칠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변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지식은 원래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교육 목적을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재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교수학적 변환(didactical transposition)으로 나타난 지식의 양상이 어떤지, 이 과정에 인식론적인 왜곡

은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문으로서의 장소감과 교육내용으로서의 장소감을 비교하며 교수학적 변환 양상을 살피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학문 영역에서 장소와 장소감의 의미를 살피고 국내외 여러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볼 것이다. 이어 교육과정·교과서 내에서 재현된 장소감 내용을 알아보고 교수학적 변환의 양상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초등 영역에서 장소 및 장소감 교육의 방향과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II. 장소와 장소감

1. 장소의 의미

‘장소’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장소감’의 의미는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지만 장소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내리기는 다소 어렵다. 장소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로 ‘공간’이 있다. 일반적으로 장소를 공간보다 작은 범주로 보며, 인간 행위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공간과 장소를 구분 짓고 정의 내리고자 하는 시도는 고대부터 시작되었다. Aristoteles는 사물과 공간이 함께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사물이 점유한 공간을 장소(topos)라 하였다. 그가 말한 장소는 사물을 포함하여 경계 지을 수 있는 일부의 공간으로, 어떤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container)과 같은 것이다.

Aristoteles는 장소가 어떤 힘을 가진다고 말했다. 여기서 힘이란 물체를 한정하는 힘이다. 장소가 사물을 감싸거나 담고 있는 것이라면 장소는 사물을 한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상봉, 2010).

Aristoteles의 언급은 장소에 대한 포괄적 개념을 제시해준다.¹⁾ 그러나 고대 이후 중세를 거치며 지리라는 학문 체계가 세워진 이후 한동안까지도, 장소라는 개념은 그리 발전하지 못했다. 장소는 지리학 연구에 있어 중심이었음에 분명하나 실증주의적 패러다임 안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장소’라는 개념에 논의가 집중된 것은 1970년대 이후 Tuan이나 Relph와 같은 학자들이 현상학을 기반으로 장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이다. 인간주의 지리학의 발전으로 인해 장소는 지리학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게 된다.

Tuan(1977)은 공간이 뜻과 의미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멈춤'과 '인간의 행위'를 들었다. 그가 말하는 장소는 '멈춤이 일어나는 곳'이자, 인간이 '어떤 행위'하기 위해서는 머무르는 곳이다. 사람의 활동과 경험에 의한 인식은 추상적인 공간을 의미로 가득 찬 장소로 바꾼다(Tuan, 1977). 결론적으로 장소라 불리는 공간은 어떤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곳임에 분명하다. 사람의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 혹은 사물에 점유된 공간은 어떤 명칭의 '장소'가 된다.

한편 장소라는 주제가 주목을 받으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Cresswell(2004)은 장소 관련 연구를 다음 세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장소의 고유성과 특이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술적(記述的) 연구다. 이는 주로 지역지리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였던 분야지만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장소의 고유한 특징에 대한 연구는 지리교육의 바탕이 되었다.

둘째는 장소에 대한 구조주의적 접근, 사회적 구성주의적 관점에 의한 연구다. 이 역시 장소의 특성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사회적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 다르다. 이는 마르크스주의자, 후기 구조주의 학자,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사회적 구성으로 장소를 파악하여 자본주의, 성차별, 식민주의 등의 구조적 조건에서 장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셋째, 장소를 현상적으로 접근하는 연구이다. 이는 장소의 특성보다는 인간의 실존에 집중하며 내부자로서 '장소 안에 있는 것(in place)'에 관심을 둔다. 이런 연구는 인간주의 지리학이나 현상학에서 많이 다루어진다(Cresswell, 2004). Cresswell(2004)은 위와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지만 이들은 완전히 별개가 아니며 중첩되어 있다고 했다. 본 논문의 주제인 장소감도 인간주의 지리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나머지 두 가지 연구와도 관련이 있다.

장소는 사람의 인식에 의해 구별된 한정적 공간이라 정의 내릴 수 있다. 장소는 공간을 한정하고 경계 지워 그 존재를 드러내게 되며,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고 명명함에 따라 장소가 된다. 이런 장소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다양하다. 장소의 고유성, 특이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찾는 데 초점을 두기도 하고, 사회적 구조 내 구성 과정(process)으로 장소를 연구하기도 한다. 이와는 다르게 실존적 측면에서 사람이 장소 안에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현상학적으로 다루기도 한다.

2 장소감의 의미

'sense of place'는 일반적으로 '장소감'으로 알려져 있으나, 연구자에 따라 '장소성', '장소의 정감'²⁾으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번역 및 용어 혼용으로 장소감의 의미는 더 모호해졌다. 이재하(2018)에 따르면, 국내 연구는 국외 연구와는 다르게 장소감 연구보다 장소성(placeness)에 대한 연구가 많다. 또 많은 연구에서 장소성(placeness)과 장소감(sense of place)을 혼용하거나, 이를 동일한 개념으로 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재하, 2018:52). 먼저 장소성과 구분하여 장소감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데 있어 장소성과 장소감은 중요한 부분이다. 장소성은 물리적·환경적 요소, 인적·사회적 요소, 정서적·상징적 요소와의 상호작용이 반복되어 형성되는 것(백선혜, 2004)으로,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는 장소에 대한 이미지(어정현·여홍구, 2010)라 할 수 있다. 장소성은 오랫동안 사람과 장소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 장소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김소라·이병민, 2015). 즉 장소성은 그 장소의 특징, 정체성, 이미지를 포함하는 용어로, 집단적 인식의 표출 결과라 할 수 있다. 지역정체성·지역문화 등을 다루는 지리 영역, 장소마케팅(백선혜, 2004), 도시 계획이나 건축 분야(권윤구, 2013)에서 장소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비해 장소감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크다. Shamai(1991)는 장소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행동을 장소감이라 하였으며 이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장소감이 장소애착, 정체성, 지역 의식 등 장소와 관련된 여러 특성을 포함한다고 보기도 한다(Masterson *et al.*, 2017). 학자마다 이견이 있기는 하나 장소감은 주로 개인적이며 정서적인 측면이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장소는 사람의 활동으로 드러나는 곳이며, 이로 인해 장소성과 장소감이 파생된다. 최병두(2002)는 개인이 느끼는 장소에 대한 감정을 장소감으로, 집단적으로 발전하여 사회적 의식 차원으로 승화된 것을 장소성으로 구분하였다. 장소감은 개인적이며 주체를 지향하는데 반해 장소성은 집단적이며 장소를 지향하는 특징을 지닌다. 장소감은 장소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해함으로써 얻는다고 한다면, 장소성은 장소적 특징을 수용하고 받아들

표 1. 장소감과 장소성

	장소감	장소성
형태	개인적	집단적
내용	주체의 인식(감정)	장소적 특징
특질	관계 지향적 인식	장소의 정체성 해석
대상의 습득	발견과 이해	주어짐, 수용
주체의 존재	다른 요인과의 관계 및 매개 수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남	인간과 장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남

출처 : 김소라·이병민, 2015:44.

임으로 형성된다(표 1). 장소감을 합한 것을 장소성이라 볼 수는 없으나 개인마다 다른 장소감이 일반화되는 과정을 통해 장소성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이재이, 2013).

한편 김덕현(1997)은 장소감을 세 가지 구분하였다. 첫째는 물리적 환경인 시각적 대상에 대한 장소감이고, 둘째는 어떤 장소의 장소성에서 느껴지는 장소감이다. 끝으로 자신이 어떤 장소에 속해 있다는 느낌으로서의 장소감도 있다(김덕현, 1997). 이 세 가지 장소감 모두 정서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장소와 사람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

최근 연구자들은 장소감을 ‘인지, 감정, 행동이 합쳐진 통합체계로 본다(Jorgensen and Stedman, 2001; Scannell and Gifford, 2010). 또 장소의미, 장소의존, 장소정체성, 장소애착, 장소착근 등 각각 다양한 하위 요소들과 관련성을 지녔다고 보기도 한다. 많은 논문에서 장소감이 무엇이며, 어떤 하위 요소를 포함하는지, 장소감의 수준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해 왔으나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장소감은 여러 분야와 영역에 있어 매력적인 연구 주제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연구자나 연구 영역에 따라 다른 의미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국내외의 연구 동향에 대해 소개하며 학문으로서의 장소감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III. 학문으로서의 ‘장소감’

1. ‘장소감’ 관련 국외 연구

장소감과 관련한 대표적 학자는 Tuan과 Relph를 들

수 있다. Tuan에 따르면, 장소감은 사람들이 장소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생긴다. 장소감은 매일의 경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시각과 청각, 후각 등의 감각의 혼합물이라 할 수 있다(Tuan, 1977).

Tuan(1977)이 개인의 장소 경험에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Relph(1976)는 장소 경험의 일반적인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Relph(1976)는 진정한(authentic) 장소감에 초점을 두고 현대사회에서의 무장소성(placelessness)이 우리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Relph(1976)는 장소를 일상생활의 장(場)이자, 인간 실존의 토대로 보았다. 그는 ‘장소정체성’을 장소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그 장소의 고유한 특징으로 설명하였다. 고유한 특징으로서의 장소정체성은 물리적 환경(physical setting), 인간 활동(activity), 의미(meaning)로 구성된다. 물리적 환경(physical setting)은 장소 내에 존재하는 물리적 요소이며, 인간 활동(activity)은 사람들의 활동 결과로 만들어진 그 장소의 인적·문화적 요소를 포함한다. 문화나 생활양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미(meaning)는 그 장소 내 사람이 환경과 활동에 기초하여 그 장소에 정체성을 부여함을 나타낸다(Relph, 1976).

장소감은 물리적 환경(physical setting), 인간 활동(activity), 의미(meaning) 세 요소와 사람의 상호작용으로 생겨난다. 사람들은 장소와 관련해 외부자 또는 내부자로서의 경험으로 외부적 정체성 혹은 내부적 정체성을 경험하게 된다. Relph는 장소 내 경험이 외부에서 내부로 발달할수록 개인은 자신과 장소를 동일시하게 된다고 했다. 진정한 장소감은 자신이 장소의 안에 있다는 느낌이라 할 수 있다(Relph, 1976).

Tuan과 Relph의 논의 이후, 장소감을 정서적 감정 이외에 확장된 틀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Stee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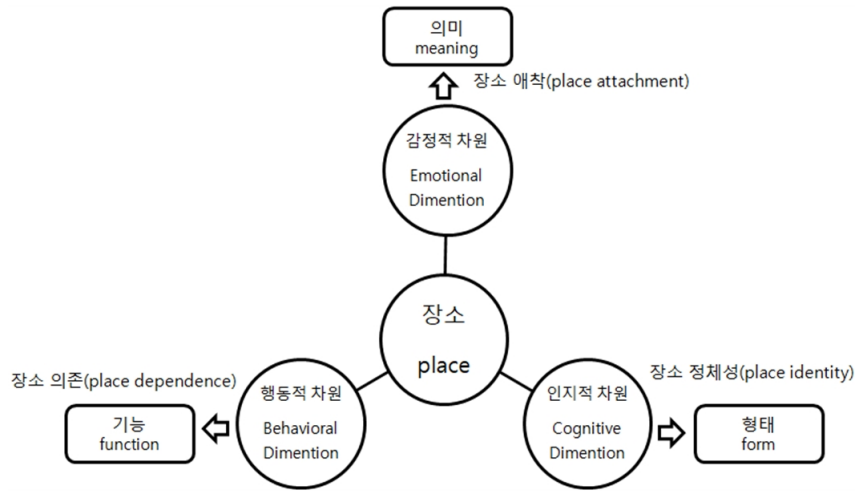


그림 1. 장소의 차원

* Jorgensen and Stedman(2001); Hashemnezhad *et al.*(2013)을 이용해 재구성.

(1981)은 장소감의 형성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장소감은 사람을 장소로 이끄는 모든 것에 대한 경험이라고 말하며, 장소감 형성과 관련해 인지·지각적 요소와 물리적 특징을 제시했다(Hashemnezhad *et al.*, 2013).

Steele(1981)은 사람과 장소의 정서적 연결고리로 인지·지각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는 사람들이 인지 구조를 통해 장소에 의미를 부여함을 뜻한다. 또 사람의 가치관, 경험, 동기 등을 포함한 인지 체계와 환경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장소감이 다르게 생성된다고 주장했다. Steele(1981)은 장소감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특성으로 장소의 크기, 스케일, 다양성, 색, 소음, 온도 등을 들었다. 또한 정체성, 역사, 재미있고 신비롭고 안정적인 기억이 사람과 장소의 소통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 장소감의 하위 요소로 장소애착, 장소정체성, 장소의존, 장소의미를 들며 이들 간의 관계를 구현해보려는 시도도 있었다. Masterson *et al.*(2017)에 따르면, 장소애착은 장소의존과 장소정체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장소의미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는 장소와 관련한 행동으로 나타나 다시 장소감에 영향을 주게 된다(Masterson *et al.*, 2017). 장소의존과 장소정체성은 장소애착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이는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연결됨을 뜻한다.

Jorgensen and Stedman(2001)은 장소감 연구에 확장적 시각을 제시했다. 그들에 따르면 장소는 세 가지 차

원으로 구성된다. 장소에 대한 사람의 신념은 인지적 차원이 되고, 장소 내 기능은 행동적 차원을 나타내며, 장소에 대한 사람의 감정은 정서적 차원이 된다(그림 1). 그리고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차원은 장소의 형태(form), 기능(function), 의미(meaning)의 요소와 조응한다. 바꾸어 설명하면 장소는 일정한 형태(인지)와 기능(행동)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은 이런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게 됨(감정)을 뜻한다. Jorgensen and Stedman(2001) 모델에서 장소의 형태, 기능, 의미의 요소는 각각 장소정체성, 장소의존,³⁾ 장소애착으로 나타낼 수 있다(Jorgensen and Stedman, 2001; 이재하, 2018에서 재인용).

최근 장소애착과 관련해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장소애착과 장소감을 동일한 개념으로 다루기도 하며(Vaske and Kobrin, 2001), 장소애착은 사람, 장소 간의 긍정적인 정서 관계만을, 장소감은 긍정적·부정적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Trentelman, 2009)으로 보기도 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Tuan과 Relph가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장소감이라는 주제는 후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변화, 발전되어 가고 있다. 장소와 사람의 관계를 좀 더 폭넓게 보고 장소감을 정서적 측면만이 아닌 인지적, 행동적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해 가고 있다. 그리고 장소감의 하위 요소도 장소애착, 장소정체성, 장소의존, 장소의미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장소감’ 관련 국내 연구

장소감에 대한 연구는 지리 이외에도 도시 계획, 문학, 관광,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도시 계획 분야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장소애착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거주기간, 주택, 근린 시설, 교육 등 있음을 밝힌 연구(최열·임하경, 2005)가 있으며, 관광 분야에서 장소애착과 관련한 관광객의 행동을 분석한 연구(윤유식·곽용섭, 2005)가 있다. 사찰 숲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장소애착에 영향을 끼치는 주변 경관과 시설, 물리적 환경 요인에 대한 연구도 있다(권태오·이덕재, 2012). 오인혜(2007)는 남한 거주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장소애(topophilia)와 고향에 대한 의식을 조사했다.

초등 지리교육에서 장소감 연구는 어린이 지리학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많다. 김일두·남상준(2015)는 학교 공간에서 어린이들이 느끼는 장소에 대한 감정을 연구하였으며, 어린이들의 장소감 속에서 나타나는 자유, 소통, 비밀, 관계라는 사적 맥락을 탐색했다. 박명화·남상준(2017)은 일상공간 내 어린이의 장소감을 연구하였다. 일상공간에서 어린이들이 공간과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장소감을 형성해 가는지를 정서적 측면에서 확인했다.

임주리(2018)는 걷기를 통한 장소감 형성에 대해 연구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이며 환경 체험에서 필수적인 걷기 활동이 장소감 형성에 의미 있는 경험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질적 연구 이외에 양적으로 장소감을 측정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김민성·윤옥경(2013)은 장소감을 장소에 대한 지식(인지적 영역), 장소에 대한 애정(정의적 영

역), 장소를 위한 실천(행동적 영역)으로 나누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만들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⁴⁾ 박니은(2017)은 마을 탐사 활동을 통한 장소감 연구를 하였다. Shamai의 장소감 발달 단계를 참고하여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고 김민성·윤옥경(2013)이 개발한 장소감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장소감의 변화 정도를 확인하였다.

국내 장소감 연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초등 지리와 관련한 장소감 연구는 어린이 장소와 이 장소에 대한 감정을 조사하는 경험적·기술적 연구가 많았다.

IV. 교육내용으로서의 ‘장소감’

1. 교육과정에 드러난 장소감

2015개정 교육과정은 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강조하며, 가르칠 내용과 기능이 합쳐진 형태인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2009개정 교육과정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교육 내용 상 몇몇 변화가 눈에 띈다. 예컨대 사회과에서 인물 및 문화 중심의 주제사적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 위치 학습 및 지리정보시스템 활용을 강조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장소감이라는 개념도 새롭게 교육과정에 등장했다.

이런 내용은 내용 체계표와 성취기준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내용 체계표에는 영역에 따라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이 나오며 학교급별 내용요소 및 관련 기능들이 제시된다(표 2). 장소감은 ‘장소와 지역’이라는 영역에 속한다. 관련 있는 핵심개념은 ‘장소’이며 일반화된 지식으

표 2. 제2015개정사회과교육과정 내용체계표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4학년	5·6학년	1·3학년		
장소 와 지역	장소	모든 장소들은 다른 장소와 차별되는 자연적, 인문적 성격을 지니며, 어떤 장소에 대한 장소감은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다양하다.	• 마을(고장) 모습과 장소감	-	• 우리나라 영역 • 국토에	• 장소감과 행복도시 • 상징 경관 • (종교적) 성지 • 장소정체성 • 장소감	설계하기 수집하기 기록하기 분석하기 : :

* 교육부(2015:8)의 내용 일부 발췌하여 작성.

로 “장소감은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다양하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체계표에 따르면 3~4학년군에서 마을(고장)내에서 장소감을 다루고, 중학교 1~3학년에서는 국토애를 배우며, 고등학교에서는 확장된 장소감과 장소정체성을 학습하게 된다. 장소감이 전 학교급에서 일관성 있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한 성취기준은 아래와 같다.

“우리 마을 또는 고장의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 보고, 서로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고장의 서로 다른 장소감을 탐색한다.”

(교육부, 2015:14)

성취기준을 보면 학생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고장을 그리고, 서로 비교해 보면서 장소감을 탐색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마을이나 고장의 그림은 “심상지도” 즉 학생들의 머릿속에 있는 고장(마을)의 모습이다. 성취 기준 해설에는 “학생 각자가 작성한 심상지도를 비교해 고장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도록 한다”(교육부, 2015:14)라고 되어 있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으로 “사람마다 장소에 대한 기억과 느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도록 지도하면서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지형지물의 위치 등에도 관심을 갖도록 한다”(교육부, 2015:15)고 하였으며 학생들이 장소감 나누기 활동을 통해 장소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알도록 하였다.

2. 교과서에서 재현된 장소감

‘장소감’은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첫 단원에 나온다. 단명원은 ‘우리 고장의 모습’이다. 이 단원에서는 고장의 모습을 살펴보고, 생활 모습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마을이나 고장의 심상지도를 그리고 비교해보면서 고장에 대한 장소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탐색하도록 한다. 고장의 모습을 살펴볼 때 있어 심상지도와 장소감 탐색이 주요 활동이 된다.

교과서에 나타난 ‘장소감’ 관련 차시는 총 6차시로, ‘고장의 여러 장소 이야기하기’(1차시) → ‘떠오르는 고장의 모습 그리기’(2~3차시) → ‘그린 그림 비교하기’(4~5차시) → ‘고장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이야기하기’(6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첫 차시에는 사람마다 생활 장소가 다를

알고 마을이나 고장의 다양한 장소를 탐색해 보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2~3차시에서는 심상지도를 그리는 활동이 주가 된다. 고장의 장소를 간단한 장소 카드로 만들고 다양한 장소를 심상지도로 표현한다. 4~5차시에서는 마을 혹은 고장의 심상지도를 살펴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활동이다. 마지막 6차시는 장소감 나누기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

차시의 진행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과서에 드러난 장소감은 ‘장소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런 장소감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장소감(sense of place)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개인의 활동이나 의식에 의해 형성되는 어떤 장소에 대한 인간의 정서적 감정을 말한다. 장소와 개인, 집단, 자연환경, 인문환경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며, 나이, 성별, 직업, 사회 계층, 종교, 인종, 가치와 신념, 교육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발생한다.”

(교육부, 2018b:41)

① 우리 고장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해 봅시다

서울이네 모둠에서는 각자 자신이 그린 고장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서울이와 친구들이 어떤 생각과 느낌으로 고장의 모습을 그렸는지 살펴봅시다.



① 우리가 생각하는 고장의 모습 • 23

그림 2. 교과서에 재현된 장소감 내용

출처 : 교육부, 2018a:23.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장소감을 사람의 정서적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정의는 내용 진술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교수·학습 참고자료 및 활동 해설 부분에서는 김민성·윤옥경(2013)의 연구를 인용하며 더 확장된 장소감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최근 지리학 및 지리교육 학자들의 장소감에 대한 논의는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인지, 감정, 행동이 합쳐진 통합 체계로 합의되고 있다. 장소감을 어떤 장소와 생태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구축되는 특정 장소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체계적 이해라고 보거나 장소감의 심리적 차원이 인지, 애정,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중략)…… 교과서에 제시된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 고장의 모습’은 이러한 장소감의 하위 요소를 고려해 구안되었다.”

(교육부, 2018b:55)

정리하면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나오는 장소감은 “어떤 장소에 대한 인간의 정서적 감정”으로 장소감의 형성과 관련하여 하위 요소로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영역”이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장소감을 알아보는 활동은 심상지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V. ‘장소감’의 교수학적 변환과 적실성

1. 학문에서 교육 내용으로 지식의 변환

가르칠 지식에 대한 이해를 준 Chevallard(1988:7)는 대부분의 지식은 가르쳐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용되기 위해서 생겨났으며, 때문에 교수학적 변환(didactical transposition)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수학적 변환이란 ‘학문적 지식’에서 ‘가르치고 배울 지식’으로의 변환을 말한다(Chevallard, 1988; 김혜진, 2015).

그런데 이 과정에서 Chevallard는 학문과 교육 내용의 거리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지식의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였다(그림 3). 지식은 학교 밖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며 학문이라는 제도적 맥락 하에 형식화되어 있는데, 이를 교육에서 사용하려면 먼저 지식의 일부를 선택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김혜진, 2015).

교사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교육과정과 교과

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학문적 지식을 교육과정·교과서의 내용과 비교·분석하는 일은 교육연구에 포괄적인 안목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장소감’은 2015개정 초등 사회과교육과정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학문적 지식이었던 장소감이 교육과정·교과서 내에서는 어떻게 재현되었는지를 확인해보고 그 적실성을 따져보는 일은 필요하다.

학문으로서의 ‘장소감’ 개념은 학자들마다 차이를 보인다. ‘장소’라는 주제는 지리 영역 이외에도 환경, 건축, 도시 설계, 관광 등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소감을 장소애착의 범주로 사람과 장소의 긍정적인 관계로 보는가 하면(Tuan, 1977), 정서적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인지·정의·행동적 영역의 포괄하는 통합체계로 간주하는 학자(Scannell and Gifford, 2010)도 있다. 관련 하위 요소 또한 장소애착, 장소의존, 장소정체성, 장소의미 등 다양하다. 장소감을 장소애착, 장소의존, 장소정체성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체로 보거나(Jorgensen and Stedman, 2001) 장소감의 형성과정에 다양한 요소가 개입한다(Masterson *et al.*, 2017)고 주장하기도 한다. 학문분야와 연구 형태가 다양하여 장소감에 대해 합의된 정확한 정의를 도출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많은 영향을 미친 연구로 어린이 지리학을 기반으로 한 장소감 연구(김일두·남상준, 2015; 박명화·남상준, 2017)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어린이와 관련 깊은 장소를 중심으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연구한 것이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재현된 ‘장소감’의 의미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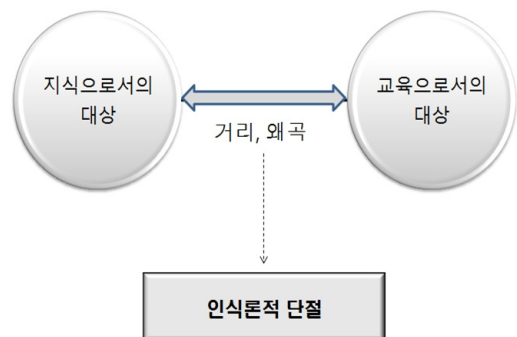


그림 3. 인식론적 경계의 필요성

출처 : 김혜진, 2015:31.

* Chevallard(1991:48-50)를 참고하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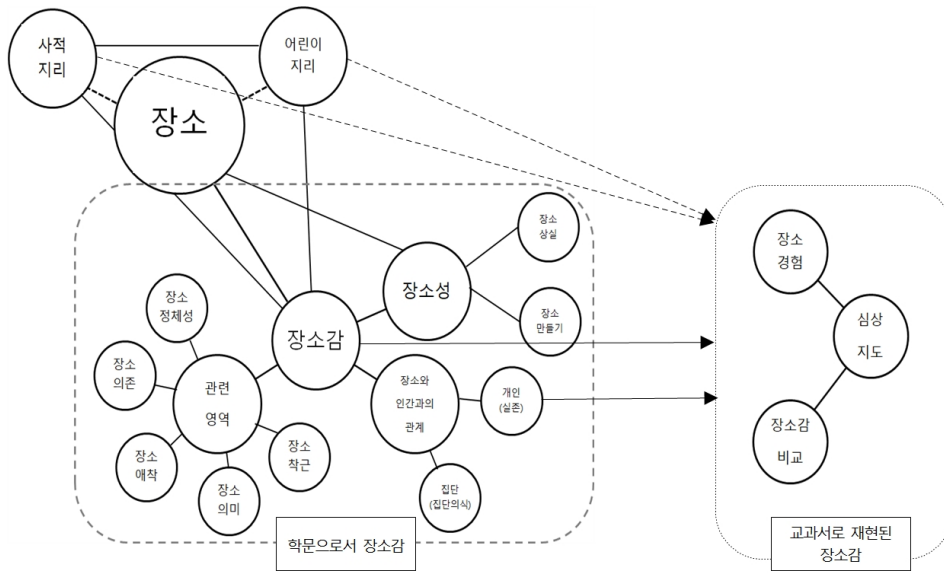


그림 4. '장소감' 지식의 교수학적 변환

에 대해 갖는 인간의 정서적 감정”(교육부, 2018b:41)으로 한정되어 있다. 정서적 감정은 학생의 경험이나 관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과서에서는 심상지도를 비교하고 우리 고장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함으로 '장소감'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장소나 고장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장소감에 대해 존중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드러난 '장소감'지식은 학문적 연구에서의 '장소감'의 복잡한 요소와 구조를 모두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장소감 역시 집단적 장소감 보다는 개인의 장소감을 존중하는 측면으로 기술되어 있다. 어린이들이 경험해 온 장소를 떠올리게 하는 것, 심상지도로 어린이들의 지리 인식을 확인하는 일 등은 사적 지리와 어린이 지리 연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그림 4).

그간 지리교육에서는 학생의 사적 지리가 배제되고 의미 없는 지리적 사실만이 연결된 공적지리가 중심이 되어 왔다. 이에 대한 비판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 많은 공감을 얻어왔다. 어린이의 개인차를 배제한 채 법칙으로서 공간을 다루기 때문에 적실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지리 지식은 우리가 공간을 분석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나 장소에 대한 경험과 감정 역시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구성요

소이다(Slater, 1993:14). 그리하여 장소와 인간의 관계와 장소에 대한 감각과 의미를 중요시하며 개인의 경험에 의한 장소 인식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를 가리켜 사적 지리(private geography) 혹은 개인 지리(personal geography)라 한다. Fien은 지리교육의 목적은 사적 지리의 확장이라고 하였다(권정화, 2011).

현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장소감'을 다루며 이와 같은 사적 지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어린이들의 생활 세계, 경험 세계를 강조하는 '어린이 지리(children's geographies)'에 대한 연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제까지 학교에서 다루는 지리지식은 어린이들의 일상생활과 거리가 먼 내용일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 지리교육에서는 학생들의 경험세계를 중요시하여 환경확대법을 일찍이 적용해 왔으나 이 역시 개개인의 사적 지리를 존중하여 구성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학생의 경험 범위는 이보다 훨씬 작고 개인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2015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드러난 '장소감'의 교수학적 변환 결과를 살펴보면, 학문적 지식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의 경험 수준, 인식 수준으로 내용이 조정되고 어린이 지리, 사적 지리, 장소 기반 교육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초등 지리교육에서 장소감 교육의 방향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 '장소감' 내용은 장소에 기반한 사적 지리의 성찰, 어린이 생활 세계의 강조, 어린이 지리 인식에 대한 통찰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어 앞으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평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생활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느낌, 생각 등을 표현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 자신의 생활 세계를 심상지도로 나타내는 일 역시 자신의 생활 세계를 확장해 가는데 필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의 장소와 관심 영역이 교과서에 반영되어 학생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밝히지는 않았으나 '장소감 비교하기'의 후속 내용으로 주요 지형지물을 디지털 영상지도로 살펴보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어린이의 사적 지리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공적 지리와 만나면서 체계화되고 확장되어 간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지리적 지식과 사고력을 확장해 나가게 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역시 사적인 장소를 확인하고 나의 장소감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 뒤 디지털 지도를 통해 우리 고장의 위치와 모습, 주요 지형지물을 확인하도록 구성하고 있어 공적 지리로 연결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내용으로 '장소감'과 관련해 교수학적 변환의 측면에서 고려해볼아야 할 점도 있다. 첫째, 교육의 장에서 장소감을 다루는 시기적 측면이다. 2학년 학생들은 주로 이웃과 마을을 기반으로 통합적으로 지식을 배우게 된다. 이어 3학년이 된 후 사회라는 과목을 처음 접한 뒤 배우게 되는 부분이 바로 '장소감'이다. 교사용 지도서에 정의한 바와 같이 장소감이 개인적 경험에 기반하고 있는 인지·정의·행동적 측면을 포함하는 통합 체계라고 한다면 장소감은 고장에 대해 인지적으로 배우고, 답사 등을 통해 느끼고 경험한 뒤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범주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고장에 대한 장소감을 확인해 보는 활동은 현재 학생의 지리적 인식 상태를 알아 볼 수 있으나 고장에서 대한 이해, 애착과 같은 발전적 방향과 연결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둘째, 학생들에게 장소감을 가르치는 목적과 관련된 부분이다. 실존적 측면에서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적 지리 영역을 확장하는 것도 교육의 커다란 목적이겠으나 이런 개개인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전체 삶의 공간

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이를 아름답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일도 필요하다. 사회과를 가르치는 근본적인 목적인 시민성 함양은 이런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일원으로서의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재현된 장소감은 장소에 대한 사적인 느낌이나 개인적 감정에 한정된 경향이 있다. 지리교육에서는 이런 장소감을 발전시켜 장소들에 대한 애착, 지역에 대한 소속감, 나라에 대한 사랑, 지구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적·정서적 측면에서 어린이 장소감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집단적 측면에서 장소감 연구, 장소애착으로 발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장소감의 다양한 하위 요소를 다루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예를 들어 장소의존과 같은 부분은 장소감과 연결해 장소의 의미를 더 공고히 해줄 수 있으며 장소의미는 장소의 이미지를 넓게 확장해 줄 수 있다. 알고 있는 장소를 표현해보는 활동 이외에도 장소감을 나타낼 수 있는 장소의존, 장소의미, 장소애착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학생 수준에서 구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리 교육 영역에서 학문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론

초등 지리교육에서 장소, 장소감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식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연구는 시작되었다. 장소는 많은 학자들에게 매력적인 연구 주제이다. 특히 인간주의 지리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장소감에 대한 논의는 Tuan과 Relph의 연구 이후 다른 학문 분야로 퍼져 나가며 발전하고 있다. 이런 학문적 발전은 지리교육에도 반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소감이라는 학문적 지식이 교육의 장에서 어떻게 변환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이를 위해 학문으로서의 장소감에 대해 살펴보고, 이것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어떻게 재현되었는지 검토했다. 그리고 교수학적 변환 상태를 점검하며 학문적 장소감과 교육 내용으로서의 장소감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학문으로서의 '장소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소감을 개인의 실존적 측면에서 살피는 학자(Tuan)가 있는가 하면 진정

한 장소감이 초점을 두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논의한 학자(Relph)도 있다. 긍정적인 장소감만을 장소감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까지 장소감으로 보기도 하며, 이를 장소감의 수준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장소와 장소감이 지리 영역 이외에도 환경, 도시 설계, 관광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었으며 관련 하위 요소로 장소애착, 장소의존, 장소정체성, 장소의미, 장소착근의 개념도 등장하였다.

교육내용으로서의 '장소감'은 장소와 인간의 관계에서도 출현 정서적 감정이라 정의하면서도 인지·정의·행동적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체계에서 나온다고 밝히고 있다. 내용의 구성 및 제시에 있어서 어린이의 장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심상지도를 이용하는 등 어린이 지리학과 장소 기반 교육, 사적 지리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수학적 변환 결과, 학문에서 다루어지던 장소감은 학생이 장소를 탐색하고 심상지도를 그리며, 마을이나 고장에 대한 서로의 감정을 비교하는 활동으로 재현되어 있었다. 학문적 지식에서 다루던 장소의존, 장소애착, 장소정체성 등과 같은 부분은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장소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서로 비교하고 존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여기에서 장소감은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며 장소애착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는 못하였다.

교육내용을 어린이의 장소를 기반으로 하고, 학생의 지리인식을 확인하는 것은 교육의 주체인 어린이를 지리교육의 중심으로 두는 일일 것이다. 자신의 생활 세계를 탐색하고 비교하며 확장하는 것은 지리적 자아로서 성장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은 장소 교육, 장소감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공적인 지리지식과 연결하는 일이 필요하다. 장소에 대한 감정을 인식하는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장소에 대한 애착, 고장·지역·국가에 대한 소속감으로 연결해 나가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문적 지식과 교육과정·교과서를 연결하는 교육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교수학적 변환의 과정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註

1) Aristoteles의 장소 이론은 헬레니즘시대에 와서는

비판받는다. 또 중세에는 열려 있는 공간의 개념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자세한 논의는 이상봉(2010)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 2) 이재하(2018)에 제시한 용어이다. 이재하는 sense of place를 장소감이라 번역한 것은 그 의미가 와 닿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해와 소통을 위해 새롭게 제시한다고 밝혔다.
- 3) 장소의존성은 장소의 실용적 가치와 관련해 특정한 장소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 4) 이들은 장소감의 하위 영역을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교과서 내 '장소감'과 관련한 내용 전개와 관련해 영향을 주었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5,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 교육부, 2018a, 「초등학교 3-1 사회교과서」. 서울: 지학사.
- 교육부, 2018b, 「사회 3학년 1학기 교사용 지도서」, 서울: 지학사.
- 권윤구, 2013, “도시 가로의 장소성 형성 구조와 의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윤구·임승빈, 2014, “장소성 측정 형용사를 통한 서울시 대표 장소의 장소성 유형 분류,”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5(3), 135-150.
- 권윤구·정윤희·임승빈, 2011, “인사동 가로의 장소성 구조 모형,” 국토계획, 46(2), 139-151.
- 권정화, 2011, “지리적 자아의 성장과 생활세계의 이해: 지리교육적 함의,” 사회과학교육연구, 13, 70-89.
- 권태호·이덕재, 2012, “사찰숲길 경관에 대한 장소애착,” 산림과학 공동학술발표논문집, 2012, 707-710.
- 김다원, 2017, “지리교육의 기본개념 분석 연구: 국내의 지리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6(3), 319-337.
- 김덕현, 1996, “장소성과 장소구축,” 사회과학연구, 14(1), 61-83.
- 김덕현, 1997, “장소감의 유형화와 장소 재현,” 사회과학연구, 15(2), 107-131.
- 김민성·윤옥경, 2013, “장소감 측정도구의 개발과 적용: 초등학생의 성별 차이를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

- 육학회지, 21(2), 17-28.
- 김소라·이병민, 2017,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장소감 연구,” 문화역사지리, 27(2), 42-54.
- 김일두·남상준, 2015, “학교 공간에 대한 어린이의 장소감,”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3(3), 39-53.
- 김정아·남상준, 2005, “장소 중심의 지리교육내용 구성원리의 탐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3(1), 85-96.
- 김창환·최내영, 2003, “성남시 모란 재래시장의 장소성을 고려한 설계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3-04, 1-13.
- 김혜진, 2015, “교수학의 인류학적 접근 이론 (ATD)을 이용한 지리지식의 변환에 대한 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상준, 1999, 「지리교육의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남호엽, 2005, “지리교육에서 장소학습의 의의와 접근 논리,” 사회과교육, 44(3), 195-210.
- 박니은, 2017, “마을 탐사 활동을 통한 장소감의 발달 특성,” 사회과교육연구, 24(3), 115-130.
- 박명화·남상준, 2017, “일상공간에서의 어린이의 장소감-정서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5(2), 41-57.
- 박승규, 2004, “어린이 지리학의 초등 지리교육적 의미,”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2(1), 1-14.
- 백서영, 2014, “장소성 형성을 위한 시각적 방법론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선혜, 2004, “장소마케팅에서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태열, 2005, 「지리교육학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 신재철, 2013, “행복 지리적 관점에서의 초등사회과 지리교육: 아동의 비밀 장소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어정연·여홍구, 2010, “장소개념에서의 장소가치에 대한 논의,” 국토계획, 45(6), 21-34.
- 오인혜, 2007, “탈북자의 고향의식과 그 변화,” 자리학논총, 49, 1-22.
- 윤유식·곽용섭, 2005, “관광일반부문: 지역주민의 장소에 착시에 따른 관광지 평가에 관한 연구,” 호텔리조트연구, 4(2), 511-525.
- 이남화·김남조, 2016, “도시관광에서 장소의 의미와 애착,” 관광연구논총, 28(4), 147-169.
- 이상봉, 2010, “서양 중세의 공간 개념-장소에서 공간으로,” 철학논총, 62, 285-311.
- 이석환·황기원, 1997,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2(5), 169-184.
- 이제이, 2013, “1인 미디어에 나타난 서울숲의 미시담론 연구-장소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재하, 2018, “장소 연구의 핵심 주제 ‘장소의 정감’재논의와 장소 만들기에서 그 중요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4(1), 51-65.
- 임승반·허윤선·정윤희·권윤구·변재상·최형석, 2011, “도시내 장소성 분포 연구,” 국토계획, 46(3), 67-78.
- 임은진, 2011, “장소에 기반한 자아 정체성 교육,”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2), 107-121.
- 임주리, 2018, “걷기를 통한 장소감 형성의 환경교육적 의미,”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양이, 2018, “중국 천진에 대한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의 지역 인식: 천진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지리학회지, 7(1), 15-28.
- 장의산·김일가·이민부·박승규, 2002, “지리과 생활중심 교수-학습의 의미와 실제,” 대한지리학회지 37(3), 247-261.
- 조수진·남상준, 2015, “장소기반교육(PBE)의 사회과교육적 의의 및 효과 탐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3(1), 1-17.
- 조철기, 2007, “인간주의 장소정체성 교육의 한계와 급진적 전환 모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5(1), 51-64.
- 조철기, 2014, “지리교과서에 재현된 어린이 및 청소년 지리 분석,” 사회과교육, 53(4), 29-45.
- 최병두, 2002,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소성의 상실과 복원,” 도시연구, 8, 253-278.
- 최열·임하경, “장소에착 인지 및 결정요인 분석,” 국토계획 40.2 (2005): 53-64.
- 최효경·김인설, 2014, “경기도 과천국립현대미술관의 장소감 연구,” GRI 연구논총, 16(3), 183-209.
- Anderson, J., 2010, *Understanding Cultural Geography: Places and Traces*, New York: Routledge(이영민·이종희 역, 2013, 「문화·장소·흔적: 문화지리로 세상 읽기」. 파주: 한울).
- Bollnow, O.F., 1994, *Mensch und Raum*, Berlin: Kohlhammer(이기숙 역, 2011, 「인간과 공간」. 서울: 에코리브르).
- Chevallard, Y., 1988, On didactic transposition theory:

- Some introductory notes,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Mathematics*, Bratislava, Czechoslovakia, 1-9.
- Cresswell, T., 2004, *Place: A Short Introduction*.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심승희 역, 2012, 「(짧은 지리학 개론 시리즈) 장소」, 서울: 시그마프레스).
- Hashemnezhad, H., Heidari, A.A., and Mohammad Hoseini, P., 2013, Sense of place” and “place attach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rchitecture and Urban Development*, 3(1), 5-12.
- Jorgensen, B.S. and Stedman, R.C., 2001, Sense of place as an attitude: Lakeshore owners attitudes toward their properti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3), 233-248.
- Masterson, V.A., Stedman, R.C., Enqvist, J., Tengö, M., Giusti, M., Wahl, D., and Svedin, U., 2017, The contribution of sense of place to social-ecological systems research: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Ecology and Society*, 22(1), 22-34.
- Massey, D., 1994, *Space, Place, and Gende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정현주 역, 2015, 「공간, 장소, 젠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Relf,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
- Scannell, L. and Gifford, R., 2010, Defining place attachment: A tripartite organizing framework.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0(1), 1-10.
- Schroeder, H.W., 1996, *Voices from Michigan's Black River: Obtaining Information on “Special Places” for Natural Resource Planning*, St. Paul, MN: North Central Forest Experiment Station (https://www.nrs.fs.fed.us/pubs/gtr/gtr_nc184.pdf).
- Semken, S., 2005, Sense of place and place-based introductory geoscience teaching for American Indian and Alaska native undergraduates, *Journal of Geoscience Education*, 53(2), 149-157.
- Shamai, S. 1991, Sense of place: An empirical measurement, *Geoforum*, 22(3), 347-358.
- Slater, F., 1993, *Learning through Geography*, Indiana, PA: 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
- Steele, F., 1981, *The Sense of Place*, Boston: Cbi Pub Co.
- Trentelman, C.K., 2009, Place attachment and community attachment: A primer grounded in the lived experience of a community sociologist, *Society and Natural Resources*, 22(3), 191-210.
- Tuan, Y.-F., 1975., Place: An experiential perspective, *Geographical Review*, 65(2), 151-165.
- Tuan, Y.-F.,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구동회·심승희 역, 2011, 「공간과 장소」, 서울: 대운).
- Vaske, J.J. and Kobrin, K.C., 2001, Place attachment and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32(4), 16-21.
- 교신 : 김혜진, 06348,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51길 46, 서울수서초등학교 (이메일: loveain7076@gmail.com)
- Correspondence : Hye Jin Kim, 06348, 46 Gwangpyeongn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Seoul Suseo Elementary School (Email: loveain7076@gmail.com)
- 투 고 일: 2018년 10월 8일
심사완료일: 2018년 10월 23일
투고확정일: 2018년 11월 16일

